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다

십자가 만들기

윤성진

사진1. 구원의 십자가

일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현대미술 조각가로서 현대미술의 여러 유형들을 만들어 왔던 나에게 십자가 만들기가 시작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조각가로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던 일과 나의 신앙과의 사이에 깊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당시 나의 신앙은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정도이었으나, 상이한 두 가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양심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바탕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주변의 작가들과 그 틀 안에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나를 조각가로서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나 자신이 꽤 그 일에 성공하고 있던 차이었다. 현대 철학의 새로운 이론들은 서둘러 습득하여야 할 과제이었고, 내가 만든 작품들은 이런 틀 안에서 평론가들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되었다. 20세기 말에 처한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해석하여 주고 삶의 기초가 되며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자연 나의 작품들은 그 틀 안에서 형태되어 진 것이었다.

회심의 계기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양심을 갖고 살며, 양심을 거스리지 않으려면 주변의 많은 작가들과 함께 유행하는 사조에 맞추어 가며 작품을 하는 일과 교회 가는 일(?) 중에 하나는 그만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어느 쪽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하여 온 그래서 생할 수단이 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교회 가는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결정할 무렵이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1997년 7월 27일 오후 3시경이었다.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이었다. 거대한 진리가 내 앞에 다가왔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성경의 내용은 단편적이고, 절대적 진리에 접근되지 못한 일반 철학에 약간의 신비성을 가미한, 한마디로 횡설 수설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충격은 내 삶의 지각변동을 가져왔고, 이후로 일 년여 동안,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는 일과 설교테이프 듣는 일이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물론 주일에 교회 가서도, 졸기에 가장 적합한 뒤에서 세 번째, 나의 지정석에서 맨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주일설교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하였다.

이렇게 지내면서 작품제작에 대한 생각을 잃어 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이 십자가 이었다. 하지만, 이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초대교회 이후, 오랜 동안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써, 교회에서 사용하여 왔고, 형태들도 다양하게 수없이 만들어 왔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서술적인 내용들을 현대적인 미술 언어로 표현하여 볼까? 신앙적인 세계를 추상미술의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구원의 십자가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형상의 십자가가 머릿 속에 그려졌다. 나는 그 모습을 지우지 않으며 아뜨리에로 내려가 순식간에 만들었다. 거의 다 완성하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다. 그 십자가가 '사진 1'의 십

사진 2. 생명나무, 1999, 알루미늄, 320x18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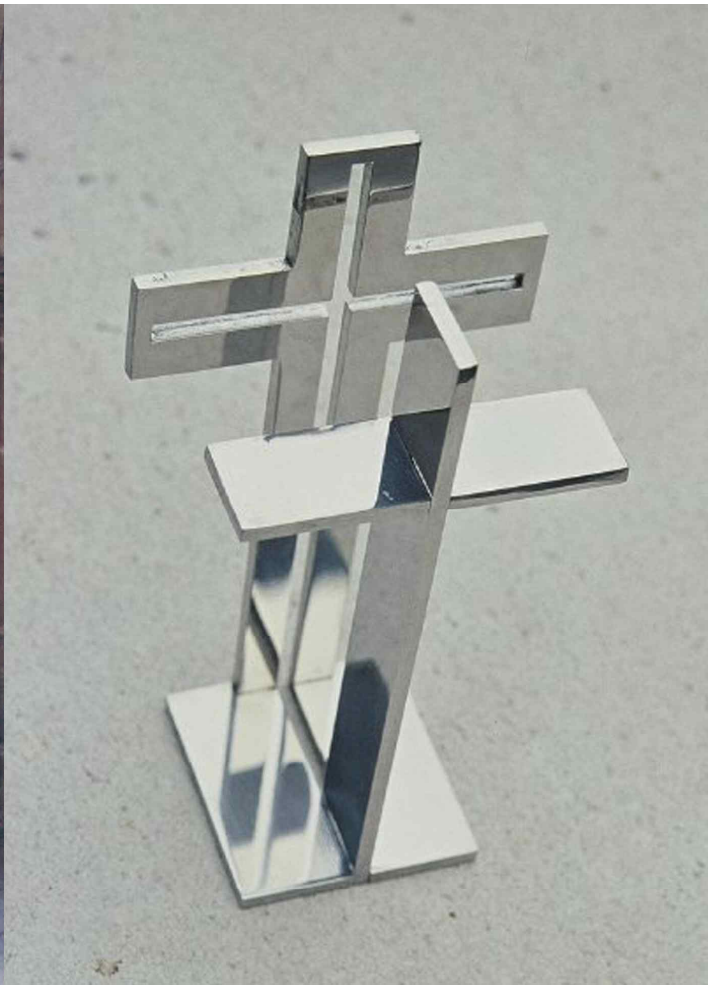

사진 3. 부활, 2000, 스테인레스스틸, 20x11x8cm

자가 이다. 아뜨리에에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을 잘라내고 드릴로 구멍들을 마구 뚫은 형상인데, 만들면서 보니 뚫린 구멍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의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였다.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의 형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불현듯 떠오른 하나의 상이 나로 하여금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로 새로운 십자가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수년을 지나니 꽤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떤 형태의 십자가의 형상이 떠올라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는 그 십자가의 명제는 커녕 어떤 의도도 들어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고, 다 완성이 되고 한참을 지나서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 나무에 구멍을 마구 뚫어 만든 십자가는 후에야 '구원의 십자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생명나무 십자가

'사진 2'의 십자가는 제목이 '생명나무 십자가'이다. 알루미늄 판을 두드려 식물들을 만들었던 90년대 초반의, 십자가를 만들기 전의 작품제작의 주된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1cm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기계톱으로 자른 다음, 불로 달구면서 두드리는 단조의 방법으로 잎사귀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용접하여 완성하여 나가는 것이었다. 이 단조는 출애굽기의 성막 짓기에도 볼 수 있는 두드려 만들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은혜가 되었다.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원자재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는 연단의 의미이다. 십자가 형태에다 나무를 겹친듯한 이미지인데, 십자가의 구원으로 에덴동산에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의미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하나의 십자가 조형물에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십자가는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시되었었다. 파리의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의 살롱에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였고, 다른 지역의 살롱 전에도 초대되어 전시하였었다. 파리시청근처의 Cloitre des Billettes 전시장과 2003년 서울에서의 개인전에도 전시되었다. 후에, 한국에서 어떤 크리스천 부인이 매입하여 자신의 집 정원에 설치하였었는데, 남편 분이 신앙이 좀 약하셨던지, 이 작품때문에 집이 너무 교회 같다고 하여 그 집에서 쫓겨나 다시 주인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LA의 이종용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코너스톤 교회에 강단 전면에 설치되었다. 그 교회는 새로 신축하였는데, 어느 분이 이 십자가를 그 교회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교회 입구 쪽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강단에 한번 세워 보자고 하시여 들고 가서 세우니, 그곳에 환경에 자로 잰듯이 한치 오차없이 딱 맞는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 십자가는 그곳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이 '생명나무 십자가'는 주문에 의해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노량진 CTS방송국 건물 신축할 때, 건물 전면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부활

한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그 십자가를 보셨는데, 후에 나를 만나셔서는 자신이 평소 교회강단에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시고는 생각을 바꾸었노라고 하시고,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도 십자가를 하나 구상해 달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좇아서 구상한 것이 '사진 3'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십자가이다. 뒷 편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는 부활하시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이 사진의 작품은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고, 하용조 목사님께 모형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후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였다. 3M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온누리 교회 안에 적당한 장소도 찾기에 쉽지 않고 특별히 십자가 제작을 위한 재정을 만드는 것도 복잡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새로운 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었다면 어떻게든 설치되었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다른 장소에 이 십자가가 어울리는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디든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